

# 이름 바꾼 ‘메타’에 서학개미 몰렸다… 3주 연속 순매수 1위

## 해외주식 Click

메타, 1조2870만달러 순매수  
사명 변경 후 주가 8.45%가량 상승  
美 기술주·금융주, 순매수 상위권

‘메타’가 3주 연속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원픽 종목으로 꼽혔다. 이어 미국 기술주, 금융주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 1~7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주식 1위 종목은 메타다. 이 기간 1조2870만달러를 사들였다.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연례 커넥트(Connect) 콘퍼런스에서 페이스북의 새 회사명 ‘메타’와 로고를 공개했다. 사명 변경 이후 메타의 주가는 8.45%가량 상승했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메타	1조2870만
2	마이크로소프트	6156만
3	엔비디아	3310만
4	비자	2915만
5	페이팔	2409만
6	아이온큐	2225만
7	스타벅스	2082만
8	노바백스	1945만
9	스파이더 S&P 바이오테크 ETF	1259만
10	프로셰어즈 울트라 프로 숏 QQQ ETF	1237만

기간: 11월 1~7일, 단위: 달러. /한국예탁결제원

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티커도 기존 FB에서 MVRS로 변경돼 거래될 예정이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은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려놓고, 메타버스 산업의 선두로 발돋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할 정도로 메타버스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메타버스가 단순한 테마로 끝나지 않고,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의 인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6156만달러), 엔비디아(3310만달러)가 각각 순매수 2, 3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매출 453억달러, 순이익 205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2%, 48% 급증했다. 특히 매출 증가 폭은 지난 2018년 이후 최대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사업으로 급부상한 애저(Azure)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등의 매출이 전년 대비 50% 성장하며, 매

출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미국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8일(현지시간) 열린 GTC 2021에서 엔비디아 옴니버스(Omniverse)를 공식 출시했다. 옴니버스는 산업, 제조, 디자인, 엔지니어링, 자율주행자동차, 로봇틱스 등 모든 환경에서 메타버스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옴니버스의 1년 구독권은 9000달러부터 시작하고, 수많은 개발자들의 참여에 따라 향후 5년간 100억달러의 매출 달성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또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컴퓨팅 하드웨어향반도체 매출에서도 막대한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 카드업체인 비자, 온라인 결제업체인 페이팔에도 각각 2915만달러, 2409만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특히 비자는 올해 3분기 매출액 66억달러로 시장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를 상회하

는 실적을 달성했다. 분기 배당 증가도 결정했다.

양자컴퓨터 전문기업인 아이온큐(2225만달러)도 새롭게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등장했다. 양자컴퓨터는 반도체가 아닌 원자를 기억소자로 활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아이온큐의 양자컴퓨터 능력은 22큐비트(양자 정보의 기본 단위) 수준이며, 2028년까지 1024큐비트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신약 개발, 자율주행 개발 능력 등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스타벅스(2082만달러) ▲노바백스(1945만달러) ▲스파이더 S&P 바이오테크 ETF (SPDR S&P BIO TECH ETF·1259만달러)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숏 QQQ ETF (PROSHARES ULTRAPRO SHORT QQQ·1237만달러) 등이 순매수 상위 10종목에 등장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초대형·복합형 디벨로퍼 앵커 리츠 도약

### IPO 간담회

####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보유자산 개발·편입 확대  
우량 외부자산 지속적 추가

복합형 디벨로퍼 앵커 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9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장에 따른 향후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승만호 서부티엔디 및 신한서부티엔디리츠대표이사는 “서부티엔디의 보유자산을 개발해 편입하고 우량한 외부자산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배당 기반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초대형·복합형 리츠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9일 승만호 서부티엔디 및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대표이사가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남궁훈 신한리츠운용 사장은 “신한리츠운용은 지난 2018년 신한알파리츠를 성공적으로 상장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성장전략과 지배구조를 가진 신한서부티엔디리츠를 출시했다”며 “2021년에는 차별화된 성장 전략 및 지배구조를 가진 또 하나의 상장 리츠인 신한서부티엔디리츠를 출시해 투트랙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대주주인 서부티엔디와 함께 성장해 나갈 복합형 디벨로퍼 앵커 리츠다.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평균 예상 배당률은 6.25%다.

모리츠의 주요 자산은 인천 서남권역의 대표적인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퀘어원(연면적 약 5만1000평)이다. 스퀘어원이 위치한 인천시 연수구는 15만세대, 39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주요 주거지역이다.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인구 및 세대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지하에 입점한 홈플러스(임대 비중 28%)를 제외한 시장의 72%를 서부티엔디가 장기 책임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도 고정 임대료의 138% 수준의 매출을 달성했다.

/박미경 기자

## 현대건설, 자동계측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언제 어디서나 현장 안전성 파악

현대건설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가설구조물 및 지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가시설 구조물의 안전사고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약 40%에 달할 정도로 사고 빈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주변 도로와 건물의 파손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된 자동계측 센서와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가시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다는 평이다. 특히 현대건설에서 운영 중인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인 HIoS(Hyundai

IoT Safety System)와 연동해,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자동으로 데이터 정리와 분석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현장의 안전성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별도 계측을 통해 관리 되던 현장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으며, 지반 침하, 지반 붕괴 및 지하수 유출의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여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파일럿(Pilot) 현장(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키)을 선정해 기술 신뢰성 및 사용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부터 안전관리 플랫폼에 탑재해 전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지속적인 스마트 안전기술 발굴 및 적용을 통해 공사 중 붕괴사고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모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우 기자

## 롯데건설, 데이터노우즈와 업무협약

부동산 데이터·AI기술로 가치 창출

롯데건설이 프롭테크기업인 ‘데이터노우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시장에서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9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양의 정보와 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리스크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체결됐다. 또한, 데이터노우즈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 국내 경제 흐름, 아파트 시장 전망, 커스터마이징 솔루션 등의 정

보를 도출해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노우즈의 리치고 시스템(AI)을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한 과학적·종합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현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의 주요 요인마다 AI를 통해 개별적 평가 기준을 부여하고 가·감점을 통해 배점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개별 배점의 합계가 곧 종합점수(주택시장 경기)가 되는 셈이다.

또한,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변화 추이를 통해 현재 주택경기의 주기상 단계(침체기, 회복기, 호황기 등)를 파악하는 ‘별집순환모형’도 설계해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격 동향 및 인구, 신규공급, 소득, 주택수급지수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향후 4년간 매년 예상 가격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데이터노우즈 관계자는 “부동산시장과 연계된 빅데이터 조사항목만 수백개에 달하며 변수도 많아 정확한 결론 도출을 위해선 AI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면서 “롯데건설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빅데이터와 AI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우 기자 yw964@

## NH투자증권, 구리선물 ETN 2종 상장

한해지형 상품… 발행 규모 200억

NH투자증권이 코멕스(COMEX)에 상장돼 있는 구리 선물의 변동률을 추종하는 구리 선물 상장지수증권(ETN)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9일 밝혔다. ‘QV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H)’은 COMEX에 상장된 구리 선물 일간 변동률의 +2배를 추종하며, ‘QV 인버스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H)’은 -2배를 추종한다.

두 상품은 한해지형 상품으로 손익은 기초지수의 변동에만 연동되며, 원·달러의 환율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손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발행 수량은 100만주, 발행 규모는 200억원이며, 발행 가격은 2만원으로 두 상품 모두 동일



하다. 총보수는 연 0.77%로 매일 최종지표 가치(IV)에 일할 반영된다. 만기는 5년으로 만기일은 2026년 10월 28일이며, 최종거래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다. 최종거래일의 최종지표가치(IV)로 2026년 10월 30일 만기상환금이 지급된다. /박미경 기자